

“목에 칼 쓰고 지옥에 떨어져도...”

대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지율 스님 “오보 바로 잡을 것”

4월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천성산 터널공사 방해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율 스님이 단호한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지율 스님은 홈페이지 ‘초록의 공명’ (www.chorok.org)과 불교환경연대 등에 보낸 장문의 편지를 통해 “항소와 상고 시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고 적법함을 주장하지도 않았기에 상소 후 27개월 만에 시의 적절하게 내린 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없다”면서도, “설령 목에 칼을 쓰고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지금과 같은 선택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3일 “지율 스님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은 적절하다”며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한 바 있다.

지율 스님이 편지를 통해 “판결일을 전달받지 못하고, 판결 소식도 거리에서 접했다”고 밝혔듯, 대법원 확정 판결은 스님에게 급작스러웠다. 하지만 주요일간지 등은 기사와 사실을 통해 ‘환경운동의 내리막 시작’ (조선일보), ‘완패한 환경독선주의’ (조선일보), ‘국민 천문학적 피해’ (동아일보), ‘환경포퓰리즘’ (문화일보) 등 악의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이미 피해액 145억을 2조5161억으로 부풀려 보도한 각 유력 언론사로부터 소송을 통해 정보보도를 이끌어 낸 스님은 “판결을 빌미로 비약해 가고 있는 논리들은 ‘악의’가 아니라 ‘시의’이기에 대법원의 판결문을 본 후 오도된 기사들을 바로 잡겠다”며 강경한



낙동강을 순례하며 자연생태를 기록 중인 지율 스님. 사진제공=오마이뉴스

대응방침도 전했다.

현재 낙동강 일대에서 생태환경 등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님은 “그들이 눈가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제가 겪고 보고 있는 이 현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끝맺으며 불자들의 관심도 당부했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대법원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에 대해 4월 24일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생명권운동보다 개발위주 정책에 면죄부를 준 부끄러운 사례로 사법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규탄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한국동방학회 창립

동방대학원대 학술대회도

한국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한국동방학회

가 창립된다. ‘동방학회 창립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이형환·동방대학원대 석좌교수)는 5월 8일 오후 1시 동방대학원대 대강당에서 학회 창립 법회 및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방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릴 학술대회에서는 △ ‘백제시대 금석문에 나타난 서예문화 연구’ (이영철 동방대학원대 교수) △ ‘황칠의 분리·정제 및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한중수 대전대 교수) △ ‘**법화경**에 나타난 사상적 계보’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 △ ‘주역학의 연구 동향과 향후 과제’ (신성수 동방대학원대 교수) △ ‘미래학은 자연치유학이다’ (한상문 을지대 교수) 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동방학회는 학술지 <동방학보>에 이날 발표된 논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김윤옥 여사 보현의집서 배식봉사.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4월 27일 서울시립 노숙복지시설인 영동로 보현의집(관장 지기)을 방문해 배식봉사 활동을 벌였다. 이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방문한 김 여사는 30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일일이 따뜻한 식사를 건네주며 “여러분들의 꿈이 성취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김 여사는 영부인이 되기 전 1년 6개월 동안 이곳을 매일 방문해 배식봉사를 한 인연이 있다.

“연꽃세상에 장애도 없어요”

장애우 모임 ‘보리수 아래’ 두 번째 공연, ‘감동’



4월 28일 열린 ‘제2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에서 원심희 회원들이 난타공연 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불교문화와 예술, 신행을 함께 하는 장애우 모임인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가 4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서 삶의 애환과 행복을 진솔하게 다룬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시와 음악은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 쌍문복지센터 효현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의 심금을 울렸다.

공연에 앞서 지현 스님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 불자들에게 대한 불교계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한 달에 한 번 일반 사회에서 어렵게 법회를 봉행하는 것도 어렵다”며 “조계사나 봉은사 등과 같은 사회에서 한 달에 한번이라도 법회를 열어 모두가 함께 부처님 법을 듣고 보며 공부하

는 것이 꿈이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희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회원들이 직접 창작한 시낭송, 무용, 노래 공연이 진행됐다.

노래 ‘지금은 봄’을 작사한 권오웅(근이양장장애, 금천가족 발행인) 씨는 신혜영 교수(춘천교대)가 작곡한 노래를 듣고 “장애인 부모님 아래에서 6남매중 둘째로 태어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과거가 추운 겨울 이라면, 반려자를 만나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한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지금은 봄”이라며 “부처님과의 인연에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리수아래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11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법당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02)959-2611, cafe.naver.com/borisa.0708

이상연 기자

장엄등 밝히고 나누는 세상 발원

대구·대전·포항 연등축제... “지역민과 함께하는 환희의 잔치”



대구시내에서 열린 제등행렬에서 청룡 장엄등이 불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서대전광장에서 봉행된 연등축제에서 대전 불자들은 한 마음으로 불심유성을 발원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을 기원하는 ‘불기 2553년 연등축제’가 4월 25일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대구불족위(위원장 허운·동화사 주지)는 대구 달구벌대로에서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문화한마당과 대구시내에서 제등행렬을 봉행했고, 대전불족위(위원

장 도안·대전불교사암연합회장)는 서대전 광장에서 스님 200여 명과 시민 3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연등축제를 열고, 대전역까지 제등행렬을 봉행했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문)도 같은 날 포항시청 광장에서 ‘전통문화 연등축제’를 개최하고 죽도초교에서 포항역까지 이어지는 제등행렬

을 펼쳤다. 이날 6시부터 진행된 법요식에는 포항지역 스님들을 비롯해 이상득·이병석 국회의원, 박승호 포항시장 등 포항시 주요 기관장, 조정현 천주교 대표신부 등 정관계, 종교계 인사도 참석해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혜철 총청지사장 손법천 대구지사장

공부해야 하는데 교문은 닫히고...

서울대 학습권 보장 요구 릴레이 3000배

서울대학교대학교(이사장 지욱, 이하 서울대) 학생들이 또 다시 3000배 시위에 나섰다.

서울대 학생회(회장 오세준)는 4월 29~30일 교육과학기술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사태’ 해결을 위한 릴레이 삼천배를 진행했다.

학생회는 ‘서울대학교대학교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서울대 이사진들이 의해 고용된 10여 명의 용역들이 학교의 교문을 틀어막고 교수들의 출입을 막는 등 학교의 부당한 처사가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회는 “용역비 지급을 위해 등록금 10명분의 금액 3400만원이 등록금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며 “학교에서 용역을 철수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또 서울대 이사회에 △김명권 조육경 박성현 성승연 교수에 대한 부

당해임 및 직위해제 철회 △법원이 인정한 황윤식 총장의 지위와 황 총장 체제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인정 등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나래(자야 초월 석사3학기)씨는 “수업시간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찾아와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지금도 가슴이 떨려 말을 이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자야초월과정에 입학한 김원태씨도 “현재 우리는 학생증도 없고, 재학증명서도 한통 발급받지 못하는 파행적인 학교행정을 겪고 있다”며 “하루 빨리 교과부에서 이를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서울대 학생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정문 앞에서 108배씩 릴레이로 3000배를 했다. 한편, 이에 앞선 2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사장 지욱 스님에 대해 60일 직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조동섭·김진성 기자

부처님 일천팔십분의 이름 회전으로 사찰경제 증흥발원

“업장소멸 범륜대 탄생”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에게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불사의 어려움을 찬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이름명패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 제품명: 순금전불반범륜대
- 재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지금 타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법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범륜대에 천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림때마다 한편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업장이 소멸되는 범륜대가 범당탁자에 봉안 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사찰 경제지킴이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범륜대 예약 대축제

(달마사 전시장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는 분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1. 양쪽 1,080명 이름페 세트 (162만원 상당)는 상담 후 일부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2. 권선문 (120명×10권)을 드립니다.
3. 숲의 향기 그대로 묻어나는 청다향 코끼리 세트(21만원 상당)를 드립니다.
4. 년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 375,000원씩 분납으로 수월하고 편안한 지불이 불사를 도웁니다.

■ 한 분 한 분 수작업으로 점수수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범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탁발 하듯 한분 한분 5,000원이 일년 6,000만원으로 사찰경제 기반이 되는 범륜대입니다.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